

# 열린신문

2026 vol. 371

APRIL 4월호

 말씀 마주보기

## 갈릴리에서 만나는 부활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죽으심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기록합니다. 마가는 십자가와 빈 무덤의 현장에 있었던 세 여인, 곧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시합니다. 당시 여성은 법적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권세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부활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교리가 아니라, 선포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사건임을 보여 줍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십자가와 빈 무덤의 ‘현장에 동참했느냐’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흩어졌고 십자가 앞을 떠났으며, 무덤에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여인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도하였으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해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아니라 사랑과 간절함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로 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특별한 방문지였다면, 갈릴리는 삶이 이어지던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중심지나 종교적 상징 공간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으로 먼저 가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의 ‘갈릴리’, 곧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의 공간에서만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은 신학적 논증을 길게 제시하기보다, 제자도의 길을 사실에 근거하여 도전합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되는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 경험되는 능력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사무국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환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 본문과 오늘

# 제국 한복판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주권



김성진 담임목사

## 본문의 배경

다니엘서는 구조적으로 1~6장의 역사적 이야기와 7~12장의 묵시(환상)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제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구체적 사건을 통해 믿음의 태도를 보여 주고, 후반부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장부터 6장에 나타난 네 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험들은 단순한 개인의 경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력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설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보여 줍니다.

##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Neo-Babylonian Empire)의 세 차례 침공(BC 605·598·586년)을 받을 때, 첫 번째 침공인 605년에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는 세 친구와 함께 약 15~17세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이미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기의 대부분을 바벨론 땅에서 보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순한 포로 생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과, 다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바사 제국(Medo-Persian Empire)에서도 중용되어 제국의 고위 관직(총리급)에 올랐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신분에서 출발했지만 여러 왕의 통치기를 거치며 제국의 핵심 행정 구조 안에서 활동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권 교체를 넘어 제국 자체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중용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탁월함과 신뢰성을 잘 보여 줍니다.

고대 세계관에서 전쟁은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의 신 마르дук이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국의 중심에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 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방 왕들이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그 신학적 결론입니다.

## 첫 번째 시험: 음식과 정체성의 문제

첫 시험은 1장에서 시작됩니다. 왕은 포로로 잡아온 왕족·귀족 청년들에게 3년간 제국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

는 것은 제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수용한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특히 음식은 우상 제사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에게는 신앙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하냐, 미사엘, 아사랴(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을 요청합니다. 이는 반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 선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과 더불어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셨습니다. 음식의 시험은 단순한 식생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이 거대한 위기 이전에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됨을 보여 줍니다.

“왕의 진미가 놓인 자리에서  
그들은 입술보다 먼저 믿음을 지켰다.

불가능한 꿈 앞에서 무릎을 꿇어  
하늘의 비밀을 여시는 분을 선포했다.

금 신상 앞 모두가 엎드릴 때  
그들은 타협 대신 풀무불을 선택했고,

금령이 내려 기도가 막힌 날에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타협하지 않은 성도의 결단 위에  
역사의 왕께서 찬란히 주권을 드러내셨다.”

## 두 번째 시험: 불가능 앞에서의 능력

두 번째 시험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II)의 꿈 사건입니다. 왕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동시에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인간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모든 지혜자가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꿈을 계시하시고, 다니엘은 왕 앞에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장차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언함으로써, 제국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 친구를 지방 통치자로 세웁니다. 포로였던 이들이 순순히 제국의 핵심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정체성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 그 정체성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실 자리를 여시는 사건입니다.

## 세 번째 시험: 높은 자리에서의 충성

3장의 금 신상 사건은 낮은 자리의 유혹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이후의 타협을 다룹니다.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단 6:10~18)

을 세우고 모든 고위 관리를 소집하여 절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 의식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능히 견지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결과에 조건을 두지 않는 신앙입니다. 구원이 순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곱 배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 속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후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됩니다.

이 시험은 이미 성공한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우상은 금속으로 만든 신상일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생존·안전·명예·권력을 절대화하는 모든 체계입니다. 현실적 손실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상대화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참된 왕이심을 열방 앞에 증거하십니다.

## 네 번째 시험: 기도와 생명의 위협

6장의 시험은 바벨론 멸망 이후, 다리오 시대에 일어납니다. 동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다니엘의 신앙을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핏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는 공개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자 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왕은 다시 한번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다니엘은 더욱 형통합니다.

기도 금지는 단순한 종교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은 제국 가운데 선포되고, 다니엘은 더욱 높임을 받습니다.

## 맺음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항상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보장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방식으로 성도의 자리를 책임지십니다. 성도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충성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과거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현대의 바벨론’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가를 묻는 현재진행형의 질문입니다. ☆

교회학교섬김조직

# 지혜로운 자녀를 세우는 교회학교



김민성 목사 교회학교 디렉터  
immanuel0912@naver.com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모든 일은 부차적이다. 자녀를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세심한 돌봄이 최우선이여야 한다.”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칩니다.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며, 교회학교는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회심입니다. 둘째,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화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란 회심하여 성화의 길을 걷는 자녀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학교는 지혜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적 지혜란 단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들으며, 입으로 무엇을 말하고, 손과 발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이 결국 어떤 사람인지를 빚어갑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기준이 무너지고 각자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욱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한 칼빈의 표현처럼,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세상과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학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

## 다음세대사역위원회

위원장: 이영춘 장로

위원: 박정갑 장로·구유희 장로

교회학교 디렉터: 김민성 목사

### 교육지원부

교역자: 김진하 전도사  
부장: 김동응 집사  
팀장: 나동훈 집사·이경옥 권사  
회계: 옥재진 집사·김용민 집사

### 서기

권세원 전도사  
최현성 전도사

### 발달장애인부

#### 사랑부 (미취학~성인)

정호석 목사

부장: 백준호 집사  
부감: 임계성 집사  
회계: 유영은 성도

### 미취학부

#### 영아부 (12개월~3세)

김진하 전도사

부장: 정성희 집사  
부감: 최정미 집사  
회계: 백승희 성도

#### 유아부 (4~5세)

한하영 전도사

부장: 이현희집사  
부감: 김성주집사  
회계: 김다이집사

#### 유치부 (6~7세)

이해선 전도사

부장: 박재현 집사  
부감: 정수연 집사  
회계: 이시내 집사

### 취학부

#### 유년부 (초등 1~2학년)

권세원 전도사

부장: 박선옥 권사  
부감: 이소영 집사  
회계: 심승범 집사

#### 초등부 (초등 3~4학년)

곽승훈 전도사

부장: 김상경 집사  
부감: 김혜정 권사  
회계: 김혜정 권사

#### 소년부 (초등 5~6학년)

원준식 전도사

부장: 박병록 집사  
부감: 박돌연 집사  
회계: 김지은 집사

### 청소년부

#### 총괄

교역자: 김민성 목사  
부장: 김민경 집사  
부감: 김선희 집사  
회계: 기나현 성도

#### 1국 (중등 1~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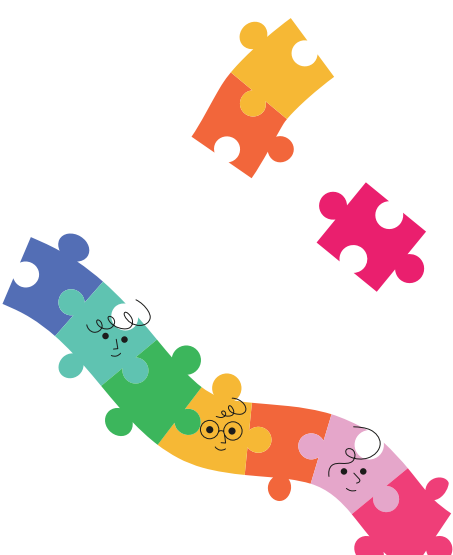
교역자: 박주광 전도사

#### 2국 (중등 3~고등 1학년)

교역자: 최현성 전도사

#### 3국 (고등 2~3학년)

교역자: 김민성 목사



겨울수련회(목양1국) 후기

# 공동체를 향한 눈물의 기도



김예지 청년부 yejimiky@naver.com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교회 청년부 목양1국 새성 팀 2순 김예지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열린키즈'로, 어릴 때부터 여름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는 일단의 의무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때에 접어들면서 회심집회나 수련회가 있으면 큰 기대를 품고 변화될 자신을 소망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국 겨울 수련회에서는 달랐습니다. 수련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수련회에 대한 엄청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매년 가는 수련회에 1국에서만 가는 수련회겠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오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 하나를 품고 수련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크게 공동체 활동, GBS, 예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은 GBS와 예배였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GBS 조에 새내기 친구들도 함께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그 시절 느꼈던 감정들, 고민들을 다시 도전받기도 하며 활기 넘치는 GBS 시간이었습니다. 새내기 친구들도 처음이고 성장반 순원들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서로를 알아가기 급급했지만, 조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은 서로였지만 그런 서로를 알아가고 그들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냥 어리기만 한 친구들이 아니었고 성장반이라 해서 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얕은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예배와 모든 일정의 끝에 마지막 모임을 가졌는데 각자의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청년으로서 그리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로 나아온 청년으로서 모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말씀에서 뒤통수를 세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정죄하고 권면하지 않고 그저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도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는 척 정죄만 하고 있었구나, 그들을 위해 내가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한 개인의 영적 상태 또한 공동체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씀 또한 어제와 이어지면서 첫날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깨달았다면 둘째 날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갱신하고 있었던 공동체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느헤미야와 같이 슬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고자 합니다.

큰 기대도 없이 가게 된 수련회였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할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공동체를 사랑할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겨울수련회(목양2국) 후기

#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서종현 청년부 jason\_seo@naver.com

어릴 때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거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수 있을지 늘 부담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 마음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의 대상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제 안에는 미래를 향한 불안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부 순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과연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대학원 졸업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면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수련회에서 주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지금까지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들은 각자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은 이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만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뒤에 자식이 없다는 결핍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왜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는 믿음보다 계산과 걱정이 앞설 때가 많았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세상을 다

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제힘으로 붙들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처음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도덕적 완벽함이나 인간적인 업적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분명해졌을 때 갖는 확신이 아니라,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이미 알고 계시고, 제가 감당해야 할 섬김과 삶의 자리 또한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번 수련회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추천도서

## 부활의 자리로

C. S. 루이스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부활의 주를 고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려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C. S. 루이스의 사순절 매일 묵상집이 출간되었다.

〈부활의 자리로〉는 C. S. 루이스의 방대한 저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의식과 고통, 천국과 지옥의 의미 등에 관한 글을 엄선해서 묶은 책이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장엄한 기적"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책이다. (출판사 서평 중)

새가족

- |         |         |         |
|---------|---------|---------|
| ▶▶ 장년   |         | ▶▶ 청년   |
| 이순이(56) | 정권혁(74) | 조연우(04) |
| 안창환(67) | 박지영(74) | 이다혜(07) |
| 김영숙(70) | 김은미(67) | 조환희(06) |
| 정상록(58) | 이은미(79) | 김예별(03) |
| 김유식(81) | 이광성(82) | 박해원(01) |
| 이솔잎(80) | 신동관(62) | 김혜준(97) |
| 윤대명(83) | 지희경(88) | 임현목(90) |
| 김신조(66) | 한총희(90) | 김지애(94) |
| 이동주(86) | 최필범(49) |         |
| 이효진(89) | 지혜영(55) |         |
| 김서영(44) |         |         |



겨울수련회(목양3국) 후기

#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누리는 은혜



전수현 청년부  
ksjwjstngus@naver.com

**교회를 나온 지 2년이 조금 넘는 이 시점에 제 안에는 한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제 기준의 교회 밖 세상은 갖가지 기준(성별, 나이, 종교, 직종, 재산, 취미 등)을 가지고 비슷한 답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나와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려는 교회의 모습이 저에게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침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공동체의 하나 됨’이었기에 저의 물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기까지 저를 기꺼이 담당해 준 지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환대로 맞이해주는 지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곳곳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지체,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체까지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서로를 환대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겨울수련회(목양4국) 후기

# 수단이 아닌 목적, 하나님

**분주한 삶 가운데 상반기 수련회 소식을 듣고 익숙하게 참석은 했지만, 기도 준비는 많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처음 청년부 수련회에 와보는 친구와 함께 참석하면서 과정 과정이 모두 소중하고 감사했다. 준비의 손길들, 맛있는 식사, 말씀 시간, 기도 시간, 교제 시간까지 새신자인 친구는 내가 보지 못하고 평범하게 느끼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해하고 신기해했다. 대화를 하면서 수련회를 통해 나도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말씀 시간, 그동안 나의 결핍과 간절한 소망에 만 지나치게 몰두하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

히 한 채 지쳐갔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신앙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오해하거나 내 방식대로 정의 내리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저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환대와 따뜻함을 기억하고 마땅히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처음 만나는 지체들과 함께한 공동체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국에 속하더라도 얼굴과 이름이 익숙한 지체보다는 낯선 지체가 훨씬 많았기에 수련회는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적힌 종이를 서로 가져가는 활동을 통해 가시적으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쌓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일상에 관심을 두며 신앙 상태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한편, 머리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해했으나, ‘과연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도 시간을 통해 누군가를 애정의 시선으로 보기보다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쉬어갔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불편하거나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리고 가까워지기를 거부해 왔던 지난 시간이 떠올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빌립보서(2:3-5)를 살펴보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기쁨’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가 이질적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과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의 일상을 돌보는 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



이한나 청년부  
2hn2hn@hanmail.net

히 한 채 지쳐갔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신앙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오해하거나 내 방식대로 정의 내리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 나의 노력이나 상태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관습적인 신앙을 벗어나, 더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서기로 다짐했다.

최근 성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를 곁에서

지켜보며, 나의 오래된 신앙 습관과 가치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긴 시간 쌓아온 종교적 경험과 지식이 나를 풍성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본질은 결국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신실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매몰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자 한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간구보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소망한다. 현실의 문제는 여전할지라도 시선을 옮겨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매일매일 묵묵히 살아내고 싶다. ☆

## 교회소식



### 어린이회심집회

① 어린이회심집회

날짜: 4월 4일(토)

시간: 영아부 10:30~12:00

유아·유치부 10:00~12:30

유년부 14:30~19:00

초등·소년부 14:30~19:30

장소: 각 부서실 (단, 5세 유아부는 유년부실)

② 학부모 기도회

날짜: 4월 4일(토)

시간: 미취학부 10:30~12:00(이성도 목사)

취학부 18:00~19:30(최성기 목사)

장소: 청소년부실(열린교육관 1층)

### 청년부회심집회

일시: 4월 5일(주일) 오후 4시 ~ 7시 30분

장소: 본관3층 예배실

### 2026년도 아웃리치 일정

1. 국내 근거리 집중 아웃리치

① 농어촌 아웃리치: 6월 6일(토) ~ 7일(주일)

② 도시미래자립 아웃리치: 10월 3일(토) ~ 4일(주일)

2. 국내 원거리 아웃리치: 8월 14일(금) ~ 17일(월)

3. 해외아웃리치: 7월 29일(수) ~ 8월 5일(수)

### 신학전문도서관 명칭 선정

열린교회 신학전문도서관의 공식 명칭이 ‘열린 리폼드 라이브러리’로 선정되었습니다.

###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 교육

교육: 3월 28일(토)~4월 11일(토) 매주 오후 4시

문답: 4월 18일(토), 4월 25일(토) 오후 4시

예식: 5월 3일(주일) 2부·3부(10시, 12시) 예배

### 주요사역

3일(금) 성금요일 특별기도회/

청년부 회심집회를 위한 금요기도회

4일(토) 어린이회심집회

5일(주일) 부활주일(성찬식 및 특송)/청년부 회심집회

9일(목) 목요일장인예배 1주년 감사예배

12일(주일) 봄 교구 총회

13일(월) 동서울노회

18일(토) 부모기도회/열린 리폼드 라이브러리 개관식

19일(주일) 장애인주일

24일(금) 임직을 위한 특별기도회

26일(주일) 국내 아웃리치 전도 교육/

영아부 예비 학부모 설명회

27일(월) 열린신학세미나

30일(목) 직장인을 위한 특별 강좌(AI 특강)

안양교도소자매결연모임 후기

# 담장 안에서 만난 형제들



장시영 장년4교구  
ghc031@hanmail.net



안양교도소 자매결연모임은 선교&복지지역위원회 산하 지역전도부 교정전도팀에서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는 귀한 섬김의 사역입니다. 이 모임은 홀수 달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며, 재소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정전도팀은 매년 두 차례 재소자를 위한 대집회와 사형수를 위한 교정서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교도소내 봉사원 모임의 요청에 따라 교리공부와 성가대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편집부 정리·도움말씀: 김하림 목사님)

약 10년 전, 박정갑 장로님의 권유로 처음 '안양교도소 자매결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교회의 사역에 한번 참여해 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 없이 발걸음을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제 마음과 신앙을 이렇게까지 깊이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 그리고 엄격한 출입 절차는 평소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소자'라는 이름이 주는 거리감이 제 마음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또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자신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몇 차례 모임을 함께하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럽기만 했던 만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형제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형제들과 악수를 나눌 때 그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자매결연 모임에는 김하림 목사님과 몇 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약 20명의 형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은 언제나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예배와 같은 형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형제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은 마치 큰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처럼 뜨겁게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한 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여 필기하며 집중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들 가운데에는 교도소에 들어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사회에 있을 때는 바쁜 삶 속에서 교회를 멀리하다가 이곳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마음이 깊이 울리는 순간은 부모님이 오래도록 기도해 왔던 자녀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오랜 시간 지나 결국 응답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역시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사역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같은 지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

리가 서 있는 자리만 다를 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문득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차가운 공간에서 지내고 있을 형제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픕니다. 여름이 되면 좁은 공간에서 더위와 답답함을 견디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곤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 사역에 참여하며 깨닫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한때의 실수로 이곳에 있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안양교도소에서는 1년에 두 차례 대강당 예배가 열립니다.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담장 안이라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드러지는 예배의 열기는 그 어떤 곳보다 뜨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저는 이 사역에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담장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형제들이 사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린교회의 안양교도소 자매결연 사역을 통해 그곳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계속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음악세미나 후기

# 예배음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백준호 장년4교구  
flutist74@naver.com



저는 열린연합성가대 지휘자 백준호입니다. 제 전공이 음악이고 직업도 음악가이며 교회에서도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기에 예배음악세미나는 꼭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예배음악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물인 음악의 기원, 교회사 속에서 음악의 흐름과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예배음악 사역자에게 필요한 자세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찬양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법의 근원을 알게 되었고 성가대 역시 성경의 역사에 근거한 형태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토대로 오랫동안 성가대 없이 성장해 온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어느 때부터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요 절기마다 성가대가 구성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사실 지휘자인 저 역시 성가대의 정당성(?)에 대해 마음 한편에 혼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경의 역사 속에도 찬양

대가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올바르게 운영된다면 오히려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음악적 감흥에 도취하거나 연주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목적의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연주 실력도 중요하지만 영성의 성장을 위해 더 노력하는 찬양 사역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 영적 책임이 있는 음악 사역자의 모습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중요하다고 기억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배 음악 사역자는 예배를 돕는 자다.
- 영성은 연주 실력보다 중요하다.
- 하나님은 음악가가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신다.
- 앞에 서는 음악 사역자는 그 영향력으로 인한 영적 책임이 주어진다.

저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때때로 단순히 연주 실력만을 기준으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겸손

하지 못한 우월감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 신앙과 달란트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지체들을 친절히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세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지체들과 더욱 화목하게 연합하는 찬양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는 예배음악 사역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악적 완성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찬양이 단지 아름다운 음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회중과 음악 사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역자 칼럼 | 경주자

# 아이들에게 이미 시작된 회심의 은혜



곽승훈 초등부 전도사  
hoonai123@naver.com

 초등학생 어린이를 섬긴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때로는 울고 웃으며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시기는 결코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신앙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많은 분이 염려합니다. 원인을 청소년기 이후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더 앞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초등학생 시기에는 인지 발달의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구체적 사실과 경험을 연결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뇌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경험과 반복을 통해 계속 회로가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계획, 판단, 자기조절과 관련된 전전두엽 기능은 뒤늦게 성숙해 갑니다. 이 시기 동안 반복되는 경험과 습관은 뇌 회로에 큰 영향을 줍니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아동기에 형성된 습관과 행동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는 죄를 짓나요?"와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원에 대한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 점에서 초등부 사역과 가정의 경건 습관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단순히 무엇을 "많이 들었는가"보다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왔는가"가 훨씬 깊이 남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동은 추상적 사고로 나아가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단계이며,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능력도 미숙한 상태입니다. 어른처럼 긴 설명을 듣고 정리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

습니다. 그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들려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 구체적인 이야기, 반복적인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아동은 문법책으로 배우기보다, 쉬운 말을 듣고 일상 속에서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혀 갑니다. 복음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아이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과 연결해 풀어 주고, 짧고 분명한 문장으로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교회 교육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예배 후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식사 전 짧은 감사의 기도, 잠들기 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 말입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갑니다. 같은 말을 다시 듣고,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며 신앙의 언어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 용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미 아이들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쌓이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더해지면서, 어느 순간 '믿음과 회개'를 통한 회심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단순히 아동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어지는 통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동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는 나중에 아니라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 교회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

곰곰이 생각

## 약속된 소망인가요?

글 · 그림: 나동훈  
gonggom2@designzip.co.kr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싱크대가 깨끗해질 거라는 소망, 주사를 참고 맞으면 몸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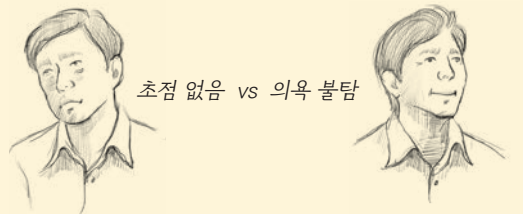


저축을 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



우리는 이런 소망들이 깨질 때마다 의욕을 잃게 됩니다. 고난을 견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제게 필요한 질문은 '약속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초점 없음 vs 의욕 불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약속,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 (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19절)

## 제2회 열린신학세미나

말씀의 시작, 구원의 출발점인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있게 조망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창세기: 구원 역사의 서막  
강사 기동연 교수(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구약신학)  
일시 4월 27(월)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본관3층 예배실  
대상 목회자·신학생·일반 성도(선착순 200명)  
등록비 1만원(강의안 및 점심식사 제공)  
등록방법 열린교회 홈페이지(www.yullin.org) 또는 QR코드 신청  
등록마감 4월 19일(주일)



## 목요직장인예배 1주년 감사예배 & AI 특별강연

바쁜 일상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감사의 예배와 유익한 강연을 통해 믿음과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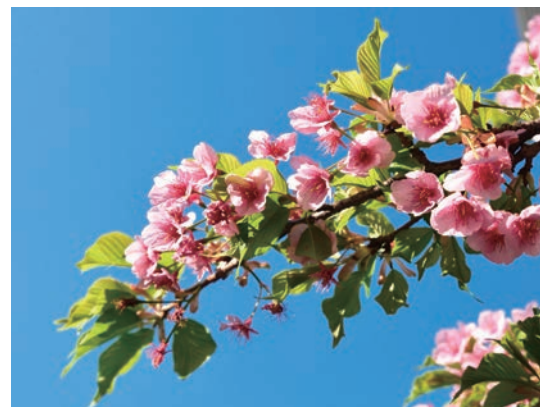
\* 감사예배  
4월 9일(목) 낮 12시 본관3층 예배실

\* AI 특별 강연  
4월 30일(목) 오후 6시 새가족실  
강사: 노경훈 박사(송실대 교수·AI 전문가)



##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강미경 장년6교구  
33789963@naver.com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저는 또래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던 때, 주위 도움으로 들어간 양말 공장은 어린 저를 보살피며 월급도 모아 주고 다시 공부할 길까지 약속해 준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출했던 어머니가 나타나 저와 여동생을 봉제공장으로 데려갔고, 모아 둔 돈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과도한 노동 끝에 폐결핵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큰 모욕과 상처를 겪은 끝에 몇 달이 지나서야 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양말 공장 사장님은 양심적이셨던 반면, 교회를 다니다던 봉제공장 사장은 잔인하고 비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교회와 신앙에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제 인생에 이후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7일 새벽, 지방 대학 기숙사에 있던 아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곧 있을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왔고, 이어진 통화에서 저를 "사단"이라 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아들이 기숙사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뒤 남편과 급히 내려가 만나 보았고,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날 밤부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집 안의 빨간색 물건들을 거실 가운데 모아 모두 다 불태우라고 명령했고, 말투와 표정은 전혀 다른 인격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나고 소리치자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졸랐고, 남편이 말려도 제압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중에 "엄마야"를 외쳤고, 그 순간 아들의 힘이 풀려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인격이 계속 바뀌는 듯한 이상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틀어 놓았으나, 아들은 다시 혼인잔치에 가야 한다며 집을 나가려 했고, 저에게 위협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의 상태를 보고 즉시 정신과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남편과 함께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그날 아들은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부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 휴대폰을 정지시키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정류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열린교회 신문이 눈에 들어왔고, 무의식중에 그것을 주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문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울부짖듯 하나님께 따지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이루지 못한 채 통곡하는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이 "아들도 병원에 있는데 당신까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모두 무너지겠다는 두려움 속에서, 결국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교회에 가기로 결심하였고, 그렇게 32년 만에 다시 교회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2일, 열린교회 '시편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달리듯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고, 새벽예배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법조차 몰라 그저 앉아 눈물만 흘렸지만, 한 성도의 소개로 A전도사님을 만나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전도사님은 처음 만난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몇 주 후 전도사님이 건네주신 책과 그 속에 적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이사가 41장 10절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며 제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제 영혼을 감싸 주는 생명수가 되었고,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처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음식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던 제가, 지인이 사 준 팔각국수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교회에 등록한 저는 새신자반을 통해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구역에 배정되어 교제 속에서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남편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족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제 성품과 삶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분노와 술에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가정 안에서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서 끊어 두었던 어머니가 떠올라, 2025년 추석에 선물을 보내고 11월에는 2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뒤틀려 있던 가족 관계를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며 상처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용서와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라 여겼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병이 우리 가정에 닥친 가장 큰 불행이라 여겼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가족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이기적으로 살던 제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해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 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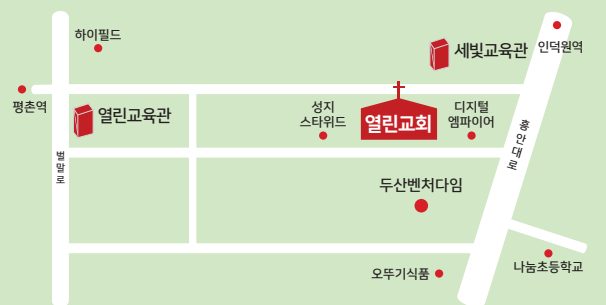
## 파송선교사

- A국:** 1 unit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태국:** 김요한 & 이진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일장일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 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테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오시면 됩니다



혼자라 느끼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이 되십니다.